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1년도 표어 ⊗

다음 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신6:4-9, 마28:18-20)

⊗ 행동지침 ⊗

- 1. 온 가족 한 교회 섬기기 운동
- 2.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운동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 운동

† 발행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수요 강단 - 느헤미야서 강해

## 최선을 다한 자의 겸손한 기도 (느 5:14-19)

## The Humble Prayer In Which He Did His Best (Neh 5:14-19)

유다의 총독이 된 느헤미야는 그에게 맡겨진 12년 동안 너무나 아름답게 그의 소임을 감당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총독이라는 위치에서 그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했기에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 받는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박노철 목사

Nehemiah who was appointed as the Governor of Judah, greatly fulfilled his duty given for twelve years. In the position of a Jerusalem Governor, how did he use his power that was given to him? What made Nehemiah a great leader who glorified God eternally, and was respected by all the people?

### 1. 사명자로서의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성공의 개념이 아니라 책임, 곧 사명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권력 같은 것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만 열중했고, 심지어는 느헤미야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나와서 일했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총독의 자리는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책임과 사명의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에게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 1. Nehemiah who was called as a worker

The opportunity that was given to Nehemiah himself was not the concept of success, but the duty, namely, he accepted it as the concept of mission.

Nehemiah thought was towards only one thing; the rebuilding of the wall of Jerusalem. He was never interested in something like wealth and power, things that he could have easily enjoyed as a being the governor. He was only absorbed in rebuilding the walls, and even his entire family came out to work. The position of governor to Nehemiah was not the place of success but a duty and mission. Nehemiah had a clear purpose to rebuild the walls of Jerusalem. Owing to a sense of mission and a sense of purpose, he was able to overcome all of the adverse circumstances.

### 2. 최선을 다하는 느헤미야

사명이란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하는 일을 일컫습니다. 사명자들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시간을 낭비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이 그의 앞을 가로 막아도 때때로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계획한 바를 추진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마땅한 것들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 2. Nehemiah who did his best

A mission as a verbatim word is said to be able to fulfill duties at the risk of one's life. There was no time for those who had a mission to hesitate. He had never wasted time. No matter what the difficult circumstances interrupted him, he often fasted, and prayed with tears, and all the while carrying forward his scheme without any disorder. He was even willing to give up a proper work for himself that he could have easily enjoyed.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고 자신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 그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it was God's will and His mission. The beautiful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ose who do their best, exactly reflects the person of Nehemiah.

### 3. 여전이 겸손한 느헤미야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노력을 다했던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입니다. 사명감으로 치열하게 살았던 느헤미야가 마지막에 구한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 3. The humble as ever Nehemiah

Nehemiah who did his best with his sense of mission, at the end simply sought God's grace. He spoke, "Remember me, with favor, Oh my God, for all I have done for these people"(19).

“내 하나님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19절).

Even though all of the ability, talent, diligence, wisdom, and leadership he had, he knew everything had been given by God, and he confessed that he did not have anything to be proud of himself. Like this, anyone who is humble to the end will be able to gain a victory.

느헤미야는 그가 가진 능력, 재능, 끈기, 지혜, 리더십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자신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끝까지 겸손한 자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 My beloved Christians!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므로 자신의 힘을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며, 끝까지 겸손함을 잃지 않으므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Though Nehemiah was afraid of God, he had never misused and abused his power himself. God says that He drives an arrogant man away and gives grace to a humble man.

Like Nehemiah, by having our mission, by doing our best in the work given to us, and by not losing our modesty to the end, I sincerely pray that all of you will be God's people winning a vict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는 여름 수련회

· 대학부: 7월20일(수)-23일(토)/고등부: 7월21일(목)-23일(토)

2011년 여름성경학교·수련회가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급주에는 대학부 수련회가 7월20일(수)부터 23일(토)까지 아가페타운에서 "주님과 함께 가는 청년!"을 주제로 진행되며 고등부 수련회는 7월21일(목)부터 23일(토)까지 "이땅의 미래 - 다음세대 고등부"를 주제로 아

가페타운에서 수련회 일정을 갖는다. 뜨거운 여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영의 힘을 얻는 수련회에 많은 성도들은 참여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한다.

## 2011년 2학기 장학생 선발

### 오늘 마감 - 사무국으로 제출

서울교회 장학회는 2011년 2학기 장학생 선발을 위한 장학생 추천을 받고 있다. 해당부서에서는 장학회 심사에 필요한 서류(교구추천서/교회학교추천서/찬양대 추천서 중 택일, 자기소개서/신앙 간증문 중 택일,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를 오늘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특기자를 제외한 지난학기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

된다. 소정의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http://www.seoulchurch.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며 서류제출 시 연락처를 기재하고 본인의 사진을 필히 첨부하여야 한다. 위 기간 내에 추천이 없는 부서나 교구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다락방 모임 방학 및 다락방장 일일수련회 안내

### 1 다락방 모임 방학

· 기간 : 7월 17일(주일)~8월 21일(주일)

### 2 다락방장 일일수련회

· 일시 : 2011년 8월 26일(금) 09:00 ~ 17:00

· 대상 : 서울교회 다락방장(부다락방장)

· 장소 : 아가페타운

· 내용 : 다락방장(부다락방장) 일일 영성수련회

· 강사 : 박노철 목사, 유문건 목사

· 기타 : 자녀들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 준비 예정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의 탄생일인 7월 10일을 맞아 올해 3 번째로 모인 장로교의 날 행사에서 이종운 원로목사님은 "한국장로교회가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남아있는 그릇터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변화를 주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며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한교단 단체제로 다시 태어나는 모범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사진 : 정치는 집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2008년 KIMCHI신학세미나에 참석한 프랑스 교역자들

## KIMCHI신학세미나 프랑스 동문 교회 성도, 우리 교회 방문 오늘 주일2부예배, 디아스포라부 참관

제16차 KIMCHI신학세미나에 참가하였던 동문이 시무하는 교회 청소년 61명이 우리 서울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주일2부예배를 드린다. 예배 후 탈북자들의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인 디아스포라부를 방문하여 참관을 한다. 성도들의 환영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아가페 타운 피아노 기증받는다

아가페 타운에서는 교육용으로 쓰일 피아노를 기증받는다.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박순봉권사(이응선장모)가 이미 피아노를 기증하였으며 신청은 사무국에서 받고 있다.

### 주일3부예배 팀파니스트 임명

주일3부예배 팀파니스트로 봉사하던 이하진 선생이 개인사정으로 사임함에 따라 주일3부예배 팀파니스트로 윤중현 선생을 임명하였다. 윤중현 선생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예술사)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기악과 예술 전문가 재학중에 있다. 과천교회와 새 에덴교회에서 팀파니스트로 봉사했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CAP 타악기 강사 재직중이고 코리아안심포니 오케스트라 타악기 연수단원으로 활동 중이다.

## 목사님, 궁금해요!

###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11]

(문9) 에덴동산의 위치를 지도상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답) : 창세기 2:10-14은 에덴동산의 위치를 추측케 하는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리학적 조건이 변하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해야 할 것이나 오늘날 네 강들의 근원지를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터키 동편에 있는 아르메니아의 고산지대에 있는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강의 근원지 이상 말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히트겔 즉 오늘날 이라크의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강이 흘러나왔고 거기서 다시 두 개의 강 즉 아라비아 남해안을 따라 하월라에 이르는 비손강과 에티오피아 즉 아프리카 구스 쪽 보다 동쪽 즉 아시아 쪽으로 구스까지 흐르는 기혼강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고산 또는 고원지대로서 여름철에도 에덴은 시원했을 것이고 여기서 네 강들이 흘러내리게 된 것입니다. 비손강이 흐르는 하월라 지역에는 금과 향료 보석들이 매장되어 있었고 이것들은 아라비아 남단 또는 서남해안 쪽을 따라 풍성히 발견되었습니다. 구스가 어디쯤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이들은 오늘날 이란의 Zagros 산맥의 기원이라 생각하는 Kassites나 수메리아에 있는 Kish와 연관된 이름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비손과 기혼강이 완전히 사라진 지금 그래도 가장 그럴듯한 설명에 의하면 아라비아는 본래 선사시대에는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두 강이 여기까지 흘렀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에덴은 동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창 2:8). 창세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하에 시내산 광야에서 머물 때 기록된 책입니다. 그런고로 '동방의 에덴'이란 시내산을 기점으로 동쪽일 것입니다. 따라서 티그리스와 유브라데스강 계곡 근처 아라비아 사막을 지난 어떤 곳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곳은 아름다운 곳이고 사용 가치가 있는 땅이며(창 2:9) 인간에게 주신 책임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 죄 함으로 그 곳에서 쫓겨났고 노아 홍수 때 그 위치를 잃어버린 후 아직도 우리는 에덴동산의 정확한 자리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계속)



이중윤 원로목사의 박효중 서울대교수와의 신앙세계 특별대담

# 복지 포퓰리즘과 대한민국의 미래

복지 포퓰리즘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 즈음 '복지 포퓰리즘과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국내 최초로 지적장애인을 위한 호산나대학과 대한학교인 호산나학교를 세우는 등 일찍이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과 열정을 쏟아온 이중윤 원로목사와 박효중 서울대 윤리학과 교수와의 대담이 월간 '신앙세계'에 실렸다. 다음은 순례자 지면상 대담 기사 가운데 이중윤 원로목사님 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이다. 원문은 신앙세계 7월호에 게재되어 있다. 편집자 주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지로 인해 얻어지는 결과를 이야기합니다만 복지는 왜 해야 되는지 그 동기를 먼저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동기를 물으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너희 의를 보려고 사람들에게 행치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제하고 선한 일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포퓰리즘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르네상스 시대 이후에 ‘인간은 평등하다’는 말이 많이 사용했는데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이큐, 성격, 생각의 폭, 깊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평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등하지 못한 것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복지라면 우선 그 동기가 선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사람 대접해 주신 것처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같이 살자고 하는 의미의 복지를 해야 평등한 사회를 이룰 수 있고, 그것이 선한 동기의 복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복지문제를 사용하려 한다면 이는 대중영합주의로 갈 가능성이 높으며, 결코 건전한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내가 가진 넉넉한 것으로 부족한 사람을 도와줌으로 균등케 하리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지의 정의는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4-5절에 하나님께서는 ‘나는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셨습니다. 재판장은 방어자(defender)를 뜻합니다. 그 당시 대부분의 신들은 왕의 신, 가진 자 편에서 축복하는 신이었는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고 과부의 방어자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약자를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약자를 돕되, 정의는 행동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정의의 모티브는 인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약자를 돕는 것입니다. 약자를 도우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지금 사회적 약자를 도와야 할 국가가 돕는 척만 하고 있으니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욥기 29장에는 하나님이 나는 네 눈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 되고, 포획한 물건을 그 입속에서 빼앗았노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는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복지정책은 꼭 있어야 합니다.

어른과 달리 자활능력이 없는 아이들의 급식 문제는 정말 심각합니다. 지금 점심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나라가 정책을 세워서 빠르게 실천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너도 나도 다 똑같이 급식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똑같은 복지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에게 하는 것과 부자에게 하는 것은 달라야 합니다. 평등이라는 게 없다고 했는데 차별 있는 것을 차별하게 취급하는 것이 진정한 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반값 등록금도 결국 세금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누구에게나 똑같이 준다면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어떤 혜택을 받아야 합니까? 그러므로 반값 등록금은 공의롭지도, 정당성도 없는 포퓰리즘에 불과한 것이라고 봅니다.

복지를 성경적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구제입니다. 구제는 율선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제를 하는 가장 좋은 예로 예수님이 비유로 드신 사마리아인의 선행이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인은 곤궁에 빠진 이를 구해주면서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갚아 주리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끝까지 하되, 물질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의 복지정책은 그런 윤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사회가 이 일에 동참하도록 장려하고 구제하는 것을 도와주면 됩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지만 특히 극빈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가 기독교교도소를 만들 때 ‘죄수들에게 복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죄수들로 하여금 삶의 변화를 느끼게 하자. 그러기 위해 나보다 약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자. 그래서 공장을 세우되 그냥 돈 버는 공장이 아니라 장애인 공장을 만들자. 그럼 죄수들이 그들보다 내가 신체는 건강하지 않은가 생각할 것이고, 거기서 생산해서 수출하면 돈도 벌고 복지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산적 복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giving & keeping, 다시 말해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반값 등록금에 관해서도 국민들만 희생하라고 하지 말고 그것을 결정하는 국회의원들이 먼저 솔선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국민들도 그것에 동감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신의 희생 없이 국민들에게 따르라고만 하면 균형이 안 맞아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들은 국민들에게 너무 과대한 사치욕구를 불러일으키지 말고 절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난한 사람도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선진국이

라고 하지 않습니다. 선진국이란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성숙한 백성이 있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가령, 중국은 정직함이 없으므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기독교 정신 있는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국민 소득 2만불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극빈자가 존재하고,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소외된 계층이 복지의 사각 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욥기서 31장에서 ‘네가 배고픈 자를 보고 먹을 것을 주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는 자를 악한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만이 해야 할까요? 물론 국가도 해야 하지만 국가는 복지 운동을 펼치고 국민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대학 반값 등록금은 공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등록금이 적정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도 해야 하지만,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학의 등록금 반을 도와주는 일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복지 예산도 이대로 가면 15년을 못 간다고 합니다. 대책 없이 주는 정책이 계속 되면 국가 장래에 큰 재앙을 가져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에 있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무분별하게 복지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당장의 유희보다 국가 장래를 생각하면서 현명하게 이를 적절히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 허숙 권사 (편집부)

“  
국가는 복지 운동을 펼치고 국민들에게 방향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일에 교회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

## 삼성로, 주차단속 강화

우리 교회는 강남구청으로부터 은마아파트 앞 교회 앞 삼성로에 주일예배 시간에 주차를 할 수 있도록 단속유예를 받아왔다.

그러나 일부 성도들의 무책임한 주차로 많은 민원이 발생하여 지난 주부터 강력한 주차단속을 하고 있다. 공문에 의하면 버스정류장(뜻말 전후 각 10m 씩)에 교회에서 세운 주차금지 표지를 옮기고 주차, 비상등 켜고 이중으로 나란히 주차, 아파트 진출로에 바짝 붙여서 주차하여 아파트에서 나오는 차량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 사고의 위험 발생, 아파트 단지 안에 압채주차 등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으며 이런 차량이 한 대라도 있을시 모든 차량을 견인한다. 강남구민회관(대치역사거리 개포동 방향에 위치) 주차장을 주일예배 시간에 주차를 허락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성도 여러분은 적극 이용하기 바란다.

새가족부를 수료하며

# 잔가지만큼 받치는 굵은 가지가 되기...

신준선 성도 (2교구)

저희는 지난 5월 8일 새가족부를 수료한 신준선, 김숙영 가정으로 지혜와 은혜 그리고 명철이 2녀 1남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섬기던 교회는 안양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교회였습니다. 서울로 이사를 한지 3년을 훌쩍 넘기면서도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정착하였던 신앙의 터전인지라 정도 많이 들었고 교회 식구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일이 아닐까 하여 쉽게 출석 교회를 바꾸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정 경기가듯 주일성수만 하다보니 자녀들 신앙교육도 걱정이 되고 한달음에 닿을 수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픈 욕망이 커져만 갔습니다.

교회를 집 근처로 옮기기로 결심한 후 서울교회 성전에 발을 들여 놓게 된 계기는 막연히 부자동네 대형교회라는 선입견이 주는 신앙적 편견이 솔직히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창 시절부터 CBS라디오 강단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매주 들던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에서 느껴지던 시류에 영

합하지 않으시는 강직함과 성경적 순수성 때문이었습니다. 근 두 달여를 미등록 교인으로 서울 교회를 출석하면서, 예배와 교육과 행정에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서러있음을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부임하신 박노철 목사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전통의 계승과 새로운 비전의 제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서울교회 등록을 결심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8주간의 새 가족부 교육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죄의 본질과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야말로 낯 놓고 기역자를 새로 배우는 초신자의 심정으로 지혜영 전도사님의 자상하고도 엄위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임상현 부장 장로님 이하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저희 부부를 담당 하셨던 백승갑 집사님, 이은옥 권사님으로부터 과분한 배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새가족부 교육을 마친 지금, 이 모든 것이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의 빛이지만, 저는 앞으로도 이를 당당히 누리고 받을 것이며 이 빛을 그 분들에게 갚을 생각은 추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강물을 아우르고, 강물이 시내를 받아들이며, 시내가 샘물을 품듯이 저도 이 물줄기 속에서 큰물이 되어갈 것이기 때문이며, 모든 생명이 있는 나무가 뿌리는 기둥을 지탱하며 기둥이 가지를 받치고, 굵은 가지가 잔가지를 받치고 영양을 공급하면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히는 영광은 마지막 잔가지에게 주듯이 저도 새로운 잔가지를 받치는 굵은 가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게 어우러지는 것을 보면서 서울교회 등록을 결심할 용기를 주었습니다.

등록을 마치고 8주간의 새 가족부 교육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하여, 죄의 본질과 은혜의 복음에 대하여, 구원의 확신과 예배의 중요성에 대하여, 그야말로 낯 놓고 기역자를 새로 배우는 초신자의 심정으로 지혜영 전도사님의 자상하고도 엄위한 가르침을 받았으며, 임상현 부장 장로님 이하 새가족부를 섬기시는 모든 지체들, 특별히 저희 부부를 담당 하셨던 백승갑 집사님, 이은옥 권사님으로부터 과분한 배려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새가족부 교육을 마친 지금, 이 모든 것이 예수 그

##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베들레헴 찬양대(부장:조정식 장로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송호연 성도의 독창 "힘한 십자가(안선)"와, 송호연, 김승지 성도가 이중창으로 "You raise me up (John Groban)"을 찬양하며, 김낙형 집사가 지휘하는 베들레헴 찬양대는 "오 깊이신 사랑(Everett Titcomb)"을 찬양 드린다. 오르간에는 오신욱 집사가, 피아노는 박수강 집사가 담당한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9일(화) 한국장로교역사박물관 추진위원회 회를 소집한다. 북한구원운동 주관 통일부 관계자 초청 모임을 갖는다. 20일(수) 한국기독교학술원 학술상 심사위원 모임을 소집한다.
- 무지개회 회장으로 한춘홍 권사가 피선되었다.
- 교역자 휴가: 박광일 목사 7월17일(주일)-23일(토)(주일제외) 대행: 지혜영 전도사
- 주간식당봉사: 이삭선교회(7.17) 도르가전도회(7.24)
- 금주의 식사: 3교구 최임수 집사 노인숙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11교구 구현철 성도 방윤희 성도 (방호철 장로 자녀) 가정 (자녀 수술을 은혜중에 마치고)

고등부 여름수련회

# 이 땅의 미래

이예원 (고등부 회장)



항상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고등부가 오는 7월 21일~23일까지 아가페 타운으로 '이 땅의 미래- 다음 세대 고등부'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떠납니다. 방학이지만 고등학생이라서 학원 수업과 학업에 대한 부담감과 스트레스가 많아서 모든 친구들이 수련회 참석여부에 대한 갈등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 고등부 친구들이 수련회가 단지 짧은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재충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여 무조건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2박 3일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짝짝 할 수 있게 하고,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는 과정에서 아무 반대가 없도록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이번 수련회에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련회에 참석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도 많은 친구들이 예배만 드리고 수련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들도 수련회에 참석해서 많은 새로운 친구와 새로운 선생님들을 만나 은혜 많이 받고 갈 수 있게 하시고, 수련회에서 모두 주님의 놀라운 은총을 한번 더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수련회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 과정들도 모두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은 고등부 학생들의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게 하여주세요.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번 목요일 9시에 101호 모여서 함께 아가페 타운으로 떠납니다. 그 날 떠날 때 기존의 고등부 친구들과 평소에 참석하지 않던 모든 친구들의 발걸음까지 인도하셔서 100여명 아니 그 이상의 학생들이 함께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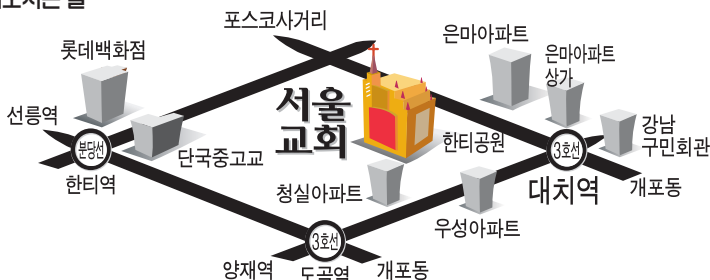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이번 주에 있는 고등부와 대학부 여름 수련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활화산과 같은 헌신들이 일어나도록
2. 방학에 들어가는 다락방 사역이 많은 기도과 치밀한 계획 가운데 잘 준비되어 주님이 꿈꾸시는 소그룹이 힘 있게 일어나도록
3. 캄보디아에 파송되신 이재울/박병진 선교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며 영육간의 필요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2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